다올 선박

2025.12.07 [800호]

DAOL 다올투자증권

돌아오는 Mozambique와 Commonwealth LNG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지수 184.42p로 0.08p 상승. 중고선가지수 191p로 1p 상승

① 신조선가 지수는 0.08p 올라 184.42p를 기록했고,
② 중고선가지수는 191p로 3주 만에 올랐는데, 중대형 벌크선과 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상승했습니다.

▶ 2029년 LNG 강력할 것이라는 얘기들

③ 한화오션 유럽 사업개발 총괄은 LNG 신조 수요가 강해서, 2029년 슬롯이 빠르게 소진 중이고, 2026년 중반부터는 2030년 인도물을 마케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④ Capital Clean Energy Carriers CEO는 LNG선 신조선가가 바닥을 찍었고, 향후 몇 개 분기 안에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⑤ PetroChina도 2028년부터 LNG 시장은 타이트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LNG 공급량 증가와 노후 LNG선의 조기 폐선 증가 때문입니다.

▶ LNG 프로젝트들

⑥ TotalEnergies의 Mazambique LNG에 ESG를 이유로 영국이 11.5억달러 금융지원을 철회했고, 네덜란드도 빠졌지만
⑦ TotalEnergies와 파트너사들은 자체 자본(Equity)으로 철회분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외부 조달 금융의 10% 규모입니다. 모잠비크의 2개 프로젝트는 2029~2030년 LNG선 슬롯을 40척 이상 차지할 LNG선 선가 상승 압박에 큰 작동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⑧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중단된 Commonwealth LNG의 허가를 재발급합니다.

▶ LNG 장기공급계약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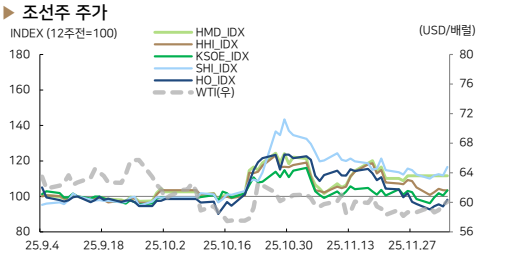
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Alasaka LNG와 20년, 1MTPA 장기공급계약 HoA를 체결합니다. 프로젝트에 투자 및 강재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합니다.
⑩ Eni는 튀르키예 Botas에 10년, 0.4MTPA 계약을 체결합니다. Eni는 2030년까지 LNG 포트폴리오를 20MTPA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LNG 도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⑪ 미국 Glenfarne는 Texas LNG와 20년 0.5MTPA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⑫ 베트남 국영 PetroVietnam은 Nhon Trach 3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 가동을 시작합니다. 향후 LNG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수행 중입니다.

▶ 한국의 수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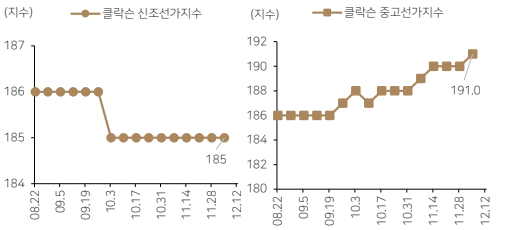
⑬ HD현대삼호는 2028년 납기 LNG선 1척을, 250.5백만달러에 수주합니다.
⑭ 한화오션은 지지난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VLCC 2척을 수주합니다. 2028년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29백만달러로 양호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2028년 슬롯을 거의 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9년 LNG선 슬롯 판매가 곧 시작됩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추가



▶ 선가지수



▶ 후판,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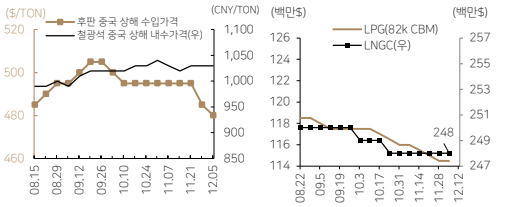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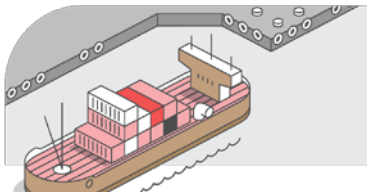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Fig. 미국 GD의 NASSCO-DSEC-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 시장 내 공동 기술/설계 협력을 위한 MOA 체결

주시 뉴스

✓ 수주, ? 수주설

	수주	12월1주 주시뉴스	수주	11월5주 주시뉴스
선가 &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7.42p로 0.08p 상승. 중고선가지수 191p로 1p 상승 ▷ Yangzijiang의 Ren Yuanlin 회장, "중국 조선 지위 흔들리지 않는다"		▷ 컨테이너선, LNG, VLGC 등 하락했지만, VLCC는 상승 △ 한국 조선사의 해외 생산 확대, 비용 경쟁력엔 도움 vs. 장기 리스크도 존재 △ 일본, '2035년까지 생산 2배' 조선 부활 계획에 6.5십억달러 투자
그린십		△ 원자력 추진 상선, 2026년부터 '주류 산업'로 진입 전망. 규제 정비가 전환점		▲ MISC, 전 선종 D/F 체제로 전환
LNG	✓	▲ LNG 신조선 문의 증가. 2029년 슬롯 내년 매진 전망 ▲ HD현대삼호, 아시아 선주 LNG선 1척 수주	✓ ?	▲ BW LNG, HD현대그룹에 LNG선 2척 신규 발주 ▲ 현대글로비스, 약 4억달러 규모 LNG선 장기용선 계약 확정. HD한국조선해양에 1척 발주 추
	?	▲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 TotalEnergies 영·네덜란드 금융 철회분 '자체 자본투입' 결정		▲ Venture Global, Tokyo Gas와 20년간 LNG 1MTPA 공급 계약 체결
	?	▲ Louisiana 주정부, Commonwealth LNG 허가 재발급. 환경단체 소송 후 한 달 만에 복원		▲ NextDecade, Rio Grande LNG Train 6 예비 인허가 착수
	?	▲ 포스코인터내셔널, Alaska LNG와 20년 장기 LNG offtake, 투자, 강재 공급 계약 체결		▲ Eni와 Edison, 2028년 인도물의 LNG선 3척 용선 확보 입찰. 투기발주 물량 소화 예정
가스선				△ Seaspan, VLEC 최대 6척(10억달러) 신조 추진. 중국 조선사와 협상 중
컨테이너선	✓	▽ George Economou의 TMS Group, 중국에 11,400-TEU[LNG D/F] 최대 10척 추가 발주 △ Zim 인수전 본격화. Hapag-Lloyd, MSC, Maersk까지 관심 표명 △ 동원그룹, HMM 인수 재추진… 10조원 규모 빅딜 재부상		▽ Maersk, 수에즈운하 복귀 위한 협정 체결… "조건 허용되는 즉시" 항해 재개 ✓ ▲ HMM,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에 12척 발주
탱커	✓ ✓	▲ 한화오션, 2주 만에 두 번째 VLCC 수주 ▽ Zodiac Maritime, VLCC와 9,000-TEU 등 16척을 중국에 발주	✓ ✓	▲ 한화오션 Maran Tankers로부터 VLCC 4척 수주 ▲ Ray Car Carriers, HD현대삼호에 VLCC 4척 추가 발주. 총 8척 건조 △ VLCC 스팟운임 14만달러/일 돌파. 차터러들 선박 확보 경쟁 심화
해양/디펜스		▲ General Dynamics NASSCO-DSEC-삼성중공업 3자 간 양해각서(MOA) 체결		△ HD현대: AI 활용해 미국 조선업 부흥 가속 의지
기타	?	▽ Shell, Argentina LNG 프로젝트에서 철수. 그러나 YPF는 계속 사업 추진		△ Russia, IMO 이사회 복귀 실패. 2년 연속 최하위 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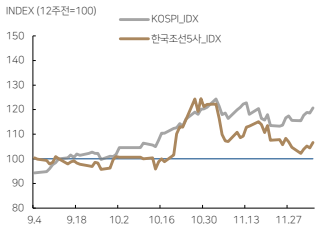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2.07 [8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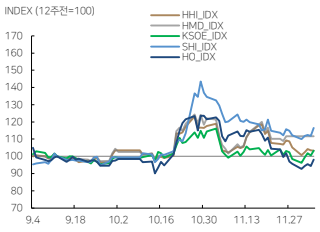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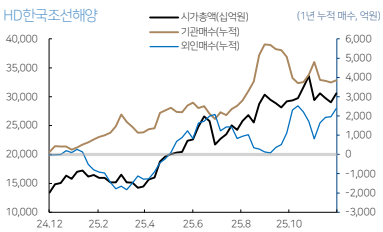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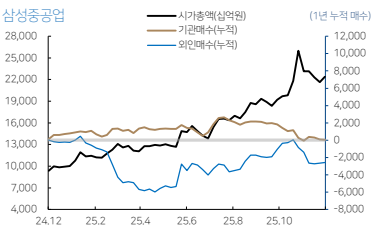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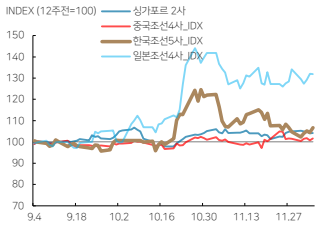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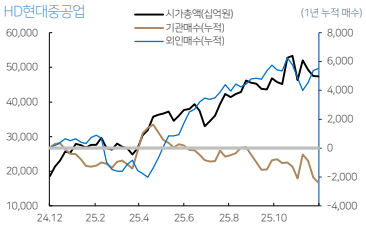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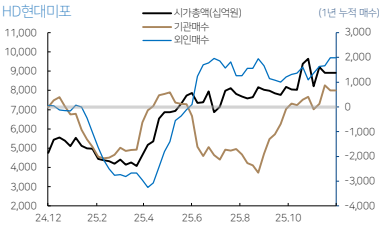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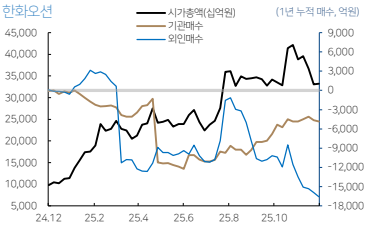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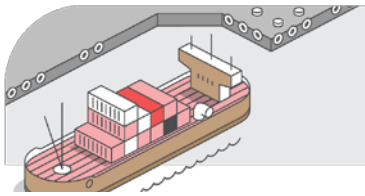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2.4%	6.8%	-6.1%		-11%	-15%
	CRB INDEX		1.5%	1.2%	-1.2%		7%	15%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20,686	4.9%	0.5%	5.9%		127%	485%
	HD현대중공업	31,763	-1.7%	-0.2%	1.3%		154%	358%
	삼성중공업	15,325	3.8%	-6.6%	20.4%		141%	399%
	한화오션	23,113	2.5%	-12.1%	-0.8%		248%	576%
	HD현대미포	6,047	9.0%	4.7%	9.0%		87%	166%
싱가포르	KEPPEL	14,232	-0.1%	1.4%	16.9%		50%	115%
중국조선	CSSC	35,941	-1.7%	-6.6%	-9.7%		-5%	44%
	CSSC OMEC	4,598	0.0%	6.9%	1.3%		20%	34%
	YANGZIJIANG	10,418	2.4%	3.0%	17.9%		28%	154%
일본조선	NAMURA SB	1,980	-3.9%	-9.0%	25.2%		191%	883%
	MITSUI ES	4,175	-9.4%	9.1%	36.7%		306%	1516%
	KAWASAKI HI	11,565	8.2%	-10.7%	18.5%		71%	256%
	SUMITOMO HI	3,406	1.1%	4.8%	30.5%		34%	49%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857	-2.1%	5.0%	1.9%		29%	9%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4,890	0.7%	13.8%	46.5%		10%	19%
	SEADRILL	1,996	4.8%	3.6%	0.3%		-17%	11%
	Valaris	4,170	6.2%	12.8%	20.7%		43%	2%
	ODFJELL SE-A SHS	1,008	0.3%	8.8%	8.1%		17%	61%
IOC+	ExxonMobil	491,468	0.5%	2.5%	2.0%		3%	13%
	Shell	209,650	-1.0%	-2.1%	-1.2%		15%	31%
	BP	94,427	-0.3%	-1.8%	4.8%		20%	-2%
	TOTALEnergies	144,911	-0.7%	5.1%	5.4%		4%	0%
	Chevron	302,028	-0.7%	-1.7%	-6.6%		-3%	11%
	ENI	58,999	-0.2%	0.8%	5.6%		20%	19%
	Equinor	59,614	1.1%	-4.7%	-4.9%		-8%	23%
ENG.	SBM	4,984	1.6%	13.1%	6.9%		48%	65%
FEED.	Technip FMC	18,616	1.7%	8.7%	25.2%		50%	113%
	SAIPEM	5,670	4.0%	10.2%	1.7%		-2%	144%
	NOV	5,898	5.3%	7.7%	21.7%		10%	15%
	MODEC INC	6,043	-12.5%	35.6%	72.3%		328%	1012%
	WORLEY PARSONS	4,454	-1.3%	-5.6%	-10.3%		-1%	-8%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20,463	6.4%	10.7%	18.6%		67%	255%
한국엔진	한화엔진	2,442	2.1%	-5.3%	-9.3%		192%	480%
	STX엔진	955	7.7%	4.9%	-19.1%		108%	175%
	HD현대마린엔진	1,916	6.7%	-3.6%	-9.6%		364%	1586%
기자재	한국카본	994	2.7%	-14.7%	-14.3%		179%	147%
	동성화인텍	511	1.4%	-20.9%	-21.9%		88%	129%
	세진중공업	691	1.7%	-12.4%	17.8%		149%	215%
	SK오션플랜트	764	-2.9%	-12.1%	-13.6%		49%	-20%

해운								
해운	MAERSKB DC Equity	32,842	3.0%	-2.3%	1.0%		7%	11%
	SHIP FINANCE INTL LTD	1,201	1.0%	11.5%	2.2%		-21%	13%
	CLARKSON PLC	1,553	-0.3%	4.0%	7.9%		-7%	33%
	EURONAV NV	3,433	-1.7%	17.4%	27.6%		-9%	23%
	GOLDEN OCEAN GROUP LTD	#N/A N/A	0.0%	0.0%	0.0%		-19%	2%
	FRONTLINE LTD	5,205	-0.6%	0.2%	11.9%		53%	62%
	NORDIC AMERICAN TANKERS LTD	792	2.7%	4.8%	20.3%		40%	16%
	KNOT OFFSHORE PARTNERS LP	458	8.1%	8.9%	28.8%		88%	10%
LPG	BW Offshore	704	3.6%	6.5%	2.4%		45%	60%
	DORIAN LPG LTD	1,069	0.7%	-13.5%	-20.0%		21%	95%
	EXMAR NV	952	-1.4%	-3.0%	6.2%		32%	108%



다올 선박

2025.12.07 [800호]

DAOL 다올투자증권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HD현대삼호, 아시아 선주 LNG선 1척 수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한화오션, 2주 만에 두 번째 VLCC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George Economou의 TMS Group, 중국에 11,400-TEU[LNG D/F] 최대 10척 추가 발주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Zodiac Maritime, VLCC와 9,000-TEU 등 16척을 중국에 발주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Hanwha Ocean→HMM, CONT(13,000-TEU) 4척

[11월5주] ▲ HMM,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에 12척 발주 완성
- 인도 시점은 2029년 2월 말. 신조선가는 전자공시 기준 183백만달러
- 한화오션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10.78조원(73.7억달러). 잔고는 138척

ⓑHanwha Ocean→Unknown, TK(320k-DWT) 2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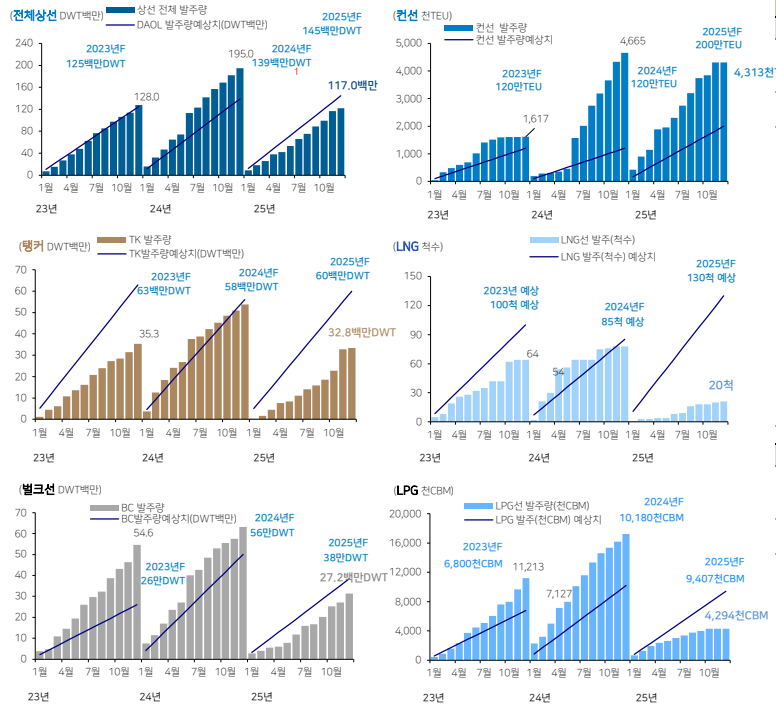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HD Hyundai Samho→Unknown(현대글로비스 추정), LNG(174k-CBM) 1척

- 아래의 LNG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5년 11월 4주								
대한민국	Hyundai HI (Ulsan)	25.11.21	한국	HMM	CONT	13k TEU	2028	2
	Hanwha Ocean	25.11.21	Unknown	Unknown	TK	320k DWT	2028	4
	HD Hyundai Samho	25.11.21	한국	HMM	CONT	13k TEU	2028~2029	6
중국	Huangpu Wenchong	25.07.01	유럽	JHI Steamship	CONT	2k TEU	2028	2
		25.09.01	한국	Namsung Shipping	CONT	4k TEU	2028	2
중국	Jiangsu Zhenjiang SY	25.03.01	Unknown	Unknown	OFF-기타		2026	2
		25.06.01	Unknown	Unknown	OFF-기타		2026	1
		25.08.01	중국	Yantai Port Tug	OFF-기타		2027	1
	Lianyungang Hongyun	25.08.01	중국	Zhoushan Haitong	OFF-기타		2027	1
	Zhuhai Jianglong	25.11.19	중국	Huazhou Ocean	OTHERS		2027	1
	Yangzhou Guoyu	25.11.26	유럽	Super-Eco Tankers	PTK	41k DWT	2028	2
	COSCO HI (Zhoushan)	25.09.0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7	2
	Penglai Jinglu SY	25.10.09	유럽	Maersk	CONT	3k TEU	2027	1
				Minerva Marine	CONT	3k TEU	2027	3
	Zhoushan Ningshing	25.09.01	아시아	Eothen Shipping	GASC	13k DWT	2027	4
	Jiangsu Sentosa	25.03.01	중국	Yangzhou Mingyang	CONT	1k TEU	2026	1
	Taizhou Hongtai SB	25.03.01	중국	Hainan Zhenran	OFF-기타	5k DWT	2025	1
	Hubei Hechuang HI	25.08.01	중국	Fuzhou Honghan Shpg	CONT	1k TEU	2027	1
				Fujian Liheng Shpg	CONT	1k TEU	2027	1
	Anhui P&S Sealand	25.10.20	중국	Shenzhen Weiqiao	BULK	10k DWT	2026~2027	6
	Unknown Yard China	25.01.15	중국	Zhejiang Dredging	OFF-SUPP	1k GT	2025	1
	SPG Marine Eqpt	25.10.20	중국	Shenzhen Weiqiao	BULK	10k DWT	2026~2027	4
일본	Kawasaki HI Kobe	25.11.01	일본	Kyushu Yusen KK	FERRY		2029	1
2025년 12월 1주								
대한민국	Hanwha Ocean	25.12.01	Unknown	Unknown	TK	320k DWT	2028	2
		25.11.27	한국	HMM	CONT	13k TEU	2028~2029	4
	HD Hyundai Samho	25.12.01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8	1
중국	GSI Nansha	25.11.01	유럽	Grandi Navi Veloci	FERRY	3k Passengers	2029	2
	Qingdao Beihai SB	25.12.02	중국	Winning Intl	BULK	325k DWT	2029	6
중국	CMHI (Jiangsu)	25.12.02	유럽	United Waterways	CRUISE		2029~2030	4
							2028~2029	4
	COSCO HI (Guangdong)	25.08.01	Unknown	Unknown	CONT	3k TEU	2027~2028	4
	Jiangsu New Hantong	25.11.14	유럽	Trafigura Maritime	TK	319k DWT	2029	2
	Wuhu Shipyard	25.12.02	중국	Anhui Wanbang Shpg	CONT	2k TEU	2028	2
	Yantai CIMC Raffles	25.08.01	유럽	Alpha Bulkers	CONT	3k TEU	2027~2028	4
	Nantong Xiangyu SOE	25.09.01	아시아	Winking Shpg	BULK	211k DWT	2028	2
		25.10.0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7~2028	2
		25.09.30	아시아	Ambuja Cements	BULK	14k DWT	2027~2028	7
		25.11.01	유럽	Atlantic Bulk	BULK	64k DWT	2027~2028	4
	Hengli SB (Dalian)	25.12.04	Unknown	Unknown	BULK	181k DWT	2027	1
		25.11.28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CONT	6k TEU	2028	4
		25.11.24	중국	Zhenghe Mainline	CONT	3k TEU	2028	5
	Tri Waters Anhui	25.12.02	중국	Shenzhen Weiqiao	BULK	10k DWT	2027~2028	10
	Zhejiang Xinxinzhou	25.08.01	중국	Hainan Jinyuda Shpg	PTK	14k DWT	2027	1
	CMI (Qingdao)	25.12.03	유럽	Neu Seeschiffahrt	BULK	342k DWT	2029~2031	6
	Zhoushan Newrising	25.06.16	중국	Zhejiang Minghang	OTHERS	5k DWT	2026	2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4.42p로 0.08p 상승. 중고선가지수 191p로 1p 상승

대다수 선종의 신조선가는 보합이었지만, 신조선가지수는 0.08p 오른 184.42p를 기록
중고선가지수는 191p로 3주만에 또 1p 상승. 중대형 벌크선이 올랐고, 4,000-TEU 컨테이너선도 상승

▷ Yangzijiang의 Ren Yuanlin 회장, "중국 조선 지위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 조선의 세계 1위 지위는 수년간 견고할 것이고,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이 부상 중이나 중국의 조선 지위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
중국은 선박 생산 CAPA·R&D·산업 공급망 등에서 여전히 절대적 우위
경쟁국 동향은, 인도가 80억달러 투자, 조선 Top 5 진입 목표, 8개 '메가 조선 허브' 계획을 발표
베트남도 붕괴된 조선소 재건·CAPA 확충 계획
중국 조선업 경쟁력 요인은 가격 경쟁력, 낮은 노동비, 초대형 CAPA, 완전한 산업 공급망, 규모의 경제, 지속적 기술 혁신
자동화·지능형 제조로 생산 효율 상승, 비용 절감 유지도 추진
향후 과제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전환을 꼽음
Ren은 중국 조선소가 향후 대응해야 할 핵심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
1)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 혁신 가속, 2) 산업체인 최적화 및 통합, 3) 브랜드 영향력 강화, 4) 국제 협력 확대, 5) 전문 인력 양성 강화
CAPA 확장에 대해 과잉공급 위험을 언급
대형 드라이독 건설, 갠트리 크레인 증설, 안벽 연장 등으로 중국 내 조선소 확장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 파산한 조선소 재가동도 증가
시장 조정(Downturn) 발생 시 CAPA 급증은 자금흐름 악화·신조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 시장 구조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시장 상황에 따라 CAPA·사업 구조 유연 조정하고, 2008년 조선 위기(대규모 도크 유휴화) 재발 방지 강조
미국의 관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추가 관세 부과하더라도, 단기 영향뿐이며, 중국 조선 수출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이는, 중국 내수 선박 수요가 매우 크고, 일대일로(Belt and Road) 프로젝트 수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Kinetics Energies, Amogy 지분 인수

Karpowership의 연료·에너지 시스템 공급사 Kinetics Energies(영국)가 암모니아 기반 발전(ammonia-to-power) 기술 기업 Amogy 지분 인수
암모니아-파워 기반 제로에미션 발전선(파워십) 전략 가속. 동시에 차세대 제로에미션 파워십을 위한 암모니아 발전 기술 협력 계약 발표
Kinetics는 기존에 FSRU 공급 → 파워십의 가스 전환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투자로 암모니아 기반 발전 전환까지 확장
타깃 시은 부유식 AI 데이터센터·디지털 인프라 전력 공급
개발 중인 차세대 파워십은 부유식 AI 데이터센터(floating AI data centres) 및 기타 고전력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설계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는 대규모·지속적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무탄소 옵션으로 부상
mogy 기술(Ammonia-to-Power)은 현장 분해 크래킹 기술, 암모니아(NH_3)를 선내에서 직접 수소(H_2)로 분해, 정교한 촉매(catalyst) 기반 모듈형 시스템
생성된 수소는 연료전지(fuel cell) 또는 엔진으로 공급해 탄소 배출 제로 발전
Amogy는 예인선(tugboat) 실증을 2024년에 완료했고
Kinetics와 공동으로 Amogy 발전 시스템을 파워십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 원자력 추진 상선, 2026년부터 '주류 산업'으로 진입 전망. 규제 정비가 전환점

원자력 추진선박이 2026년부터 본격 상용화 국면 진입
영국 Core Power CEO는 지난 7년간 수십억달러 규모가 규제·선박설계·인력훈련에 투자되며 기반 조성
"2026년은 핵심 전환점"이라며 원자력 추진선이 틈새가 아닌 주류 시장으로 이동한다고 전망
IMO·IAEA가 2026년에 글로벌 규제 기반 구축했는데,
IMO 해사안전위원회(MSC)는 2026년 1월부터 원자력 추진선 관련 안전 코드 현대화 작업 시작
이는, 글로벌 표준화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첫 단계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2026년 2월 'ATLAS(선박용 원자력 기술 해상 적용 라이선스)' 출범해
해상 환경에 맞는 원자로 안전·보안·검증 기준 마련
두 가지가 FNPP(부유식 원자력 발전설비)와 원자력 추진선의 상용화를 위한 통합 규제 기반으로 작동
산업의 움직임은 "이제는 IF가 아니라 HOW의 문제"라고 인식
조선소, 선사, 정부, 금융기관이 공개적으로 참여 의지 표명하는 단계로 이동
보험·선급도 원자로의 국제 항행을 위한 책임·규정 정비 중
미·영 정상회담에서도 원자력 해운 협력 가속. 2025년 9월, 미국-영국 간 원자력 해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대서양 원자력 해운회랑(nuclear shipping corridor) 조성 추진해, 양국의 강한 의지 반영
한국·일본 조선사들도 정부 지원 요청하며 적극 진입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일본 조선소 모두 원자력 추진선 시장 진입 위해 정부 지원 로비 중
중국 대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인식
미국-유럽-한국-일본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형성과 발전·수리·해체까지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 구축 가능
첫 원자력 추진 설비는 2033년 건조 예정. 초기 15~20척 규모의 시범적인 잔고(2034~2030년대말) 예상
이후 급성장하여 2060년경 3,000척 규모 원자력 선대 전망
원자력 추진선의 장점은 ① 배출 제로에 가까운 운항 가능, 운항 속도 획기적 개선
현재 벌크선 9.5~11노트, 탱커 9.5~11노트, 컨테이너선 16~18노트이지만
원자력 추진선은 벌크/탱커 17~19노트, 컨테이너선: 최대 30노트까지 가능
이에 따라 공급망 효율·경쟁력 대폭 개선
연료소비 절감 + 탄소감축 50% 이상 기대. 해양 연료 사용량 절반을 차지하는 7,300척 대형선이 도입 1순위
원자력 상선 도입이 촉발할 산업 변화는 아시아·유럽·미국의 조선업 전반에 걸쳐
건조 → 장비 공급망 → 유지보수 → 해체까지 새로운 거대 시장 형성

▶ LNGc

▲ LNG 신조선 문의 증가. 2029년 슬롯 내년 매진 전망

2026년 이후 LNG선 시장은 공급 부족(super-tight) 국면 진입 가능성 매우 높음
최근 3~4개월간 LNG선 신조 문의가 뚜렷하게 증가. 선대 확장, 노후선 대체 수요 모두 강함
한화오션 유럽 사업개발 총괄 Georgios Plevrakis은 "LNG선 신조 수요는 건강한 수준, 2026년 1분기까지 강세 지속 전망"
2029년 인도 슬롯이 빠르게 소진 중이고, 2026년 중반부터는 2030년 인도로 넘어갈 가능성 높다고 설명
이에 따라 신조선가 상승 압력. Capital Clean Energy Carriers CEO는 "시장 신조선가가 바닥을 찍었고, 향후 몇 분기 안에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
기간용선 수요·선박 확보 경쟁이 이미 진행 중
LNG선 수급은 쇼티지 가능성이 우세 전망
LNG 생산 증가량 200MTPA(건설 중)
일반적으로 1MTPA에 1.5척(미국-유럽), 3척(미국-아시아) 필요해, 현재 350척이 필요하다는 시장 추정이 일반적. 신규 물량 목적: 350척 필요라는 시장 일반 추정
하지만 신규 생산량의 절반만 아시아로 가도 수요 증가로 총 400~450척 필요(교체 수요 포함)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감안 시 선박 부족이 확실해 보임
노후 LNG선 대규모 퇴출도 가속. 2025년에 스팀터빈 LNG선 15척이 이미 폐선. 사상 최고 수준
2030년까지 매년 약 20척 스팀터빈 폐선으로, 총 100척 감소 예상
2033년에 노후 LNG선은, 25년 이상이 270척, 20년 이상이 400척
Lloyd's Register는 용선자는 이미 노후선 기피 중이며, 2030년대에는 사실상 고용 불가하다고 평가
이에 따라 대규모 '대체 신조' 필요. GTT는 향후 10년 동안 LNG선 신조의 45~50%는 교체 목적이 될 것이라고 진단
여기에 올해 FID 완료된 80MTPA 추가 LNG 프로젝트도 선박 수요를 자극
Mitsui OSK Lines(MOL)은 향후 200MTPA 추가 생산이 실제로 "얼마나, 어디에서 소비될지" 불확실하다고 우려감 표명
현재 환경은 공급-수요 예측 자체가 매우 어려움

▲ HD현대삼호, 아시아 선주 LNG선 1척 수주

2028년 12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50.5백만달러로 공시
[11월3주] ▲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LNG선 발주 협상

▽ 영국,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11.5억달러 금융 지원 철회

영국 정부 산하 UK Export Finance(UKEF)가 TotalEnergies의 Mozambique LNG(총 사업비 200억달러)에 대한 11.5억달러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
2020년 보수당 정부가 UKEF 지원을 약속했으나, 2021년 프로젝트 인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 발생했고, TotalEnergies가 force majeure 선언
2025년 10월 force majeure 해제 전, UKEF는 과거 합의된 조건을 변경하는 금융 제안서를 전달받음
영국 비즈니스·통상부 장관이 이를 의회에 서면 보고했는데, 리스크 검토 결과, 2020년 대비 프로젝트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판단
영국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
UKEF는 이미 지급된 보험 프리미엄을 환불해, 더 이상 리스크 노출 없음
영국 정부는 영국 수출 기업 지원(UKEF 포함)은 계속하겠다고 강조
동시에 모잠비크와의 장기적 협력, 기후 대응, 아프리카 내 지속 성장·안보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
시민단체·환경단체는 "Mozambique LNG는 문제투성이 사업이며 지지 철회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언급
"다른 금융기관들도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으며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심각하게 파괴적인 프로젝트이며, 영국 정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TotalEnergies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음
미국의 Export-Import Bank(US EXIM)는 올해 최대 47억달러의 Mozambique LNG 지원 승인
☞ 기다리던 사업인데 악재입니다. 단, 다른 파이낸싱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 TotalEnergies·파트너사는 영·네덜란드 금융 철회분 '자체 자본투입' 결정

TotalEnergies와 파트너사들이 Mozambique LNG(총 205억달러)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네덜란드의 금융 지원 철회분을 자체 자본(Equity)으로 충당하기로 결정
추가 투입될 자본은 외부 금융의 약 10% 규모
영국 정부의 UK Export Finance(UKEF)가 최대 11억5천만달러 금융 지원을 중단했고
네덜란드 Atradius Dutch State Business(ADSB)도 참여 중단
TotalEnergies는 11월 24일에 11억달러 규모 ECI(수출보험) 요청 철회
이에 TotalEnergies는 자체 자본 투입으로 대체 결정
프로젝트는 2020년에 이미 외부 금융 154억달러(30여 금융기관+ECA) 조달 완료
Cabo Delgado 지역 무장세력 공격으로 4.5년간 force majeure 적용되었고, 2025년 해제 이후 수정된 일정으로 금융 구조 재협상 진행
TotalEnergies CEO는 올해 초부터 "파트너들이 필요 시 Equity만으로도 추진 가능" 의사 표명
네덜란드 재무부 의뢰 보고서(12월 1일 발표)에 대해 TotalEnergies는 "실사단이 Mozambique 현장 방문 없이 3자 정보에 의존했다"고 비난
Mozambique LNG의 지분 구조는 TotalEnergies 26.5% (운영사), Mitsui(일본) 20%와
India ONGC Videsh 10%, Bharat Petroleum 10%, Oil India 10%, PTTEP(태국) 8.5%, ENH(모잠비크 국영) 15%로 구성

△ TotalEnergies, Papua LNG EPC 발주 2026년 1월 계약 체결 전망

TotalEnergies(프랑스)가 수년간 준비해온 Papua LNG 프로젝트가 2026년 1월에 핵심 육상 EPC 계약 예정
이는 2026년 1분기 FID를 향한 결정적 단계
육상 EPC 패키지(30억달러+)는 중앙 처리시설(CPF), Well pad(시추 패드), 육상·해상 파이프라인 일부(프로젝트 전체 320km 중 육상 60km·해상 260km 연결 구조)
CPECC(중국) vs Sinopec International Petroleum Service(중국)이 경쟁하는, 실질적으로 2파전(two-horse race) 상태
Sinopec은 2024년 11월 TotalEnergies와 LNG 200만톤/년 × 15년(2028년~) HoA 체결
거래 물량이 Papua LNG에서 공급될 것이란 관측. 전략적 연계성
McDermott(미국)도 초기 관심 있었으나, 가격 경쟁력 부족 판단으로 입찰 철회
Downstream FEED 계약은 JGC(일본) + 현대건설(한국) JV가 수주
해상 파이프라인 패키지 입찰자는 China Offshore Oil Engineering Company (COOEC), Saipem(이탈리아), NMDC Energy(아부다비)
설비 용량 5.6Mtpa, 매장량: 6.5 Tcf, CCS(탄소포집저장) 포함
Papua LNG는 향후 ExxonMobil 주도 P'nyang 프로젝트 등으로 수출 확대 전략도 도모
TotalEnergies 37.55% (운영사), ExxonMobil 37.04%, Santos 22.83%, JX Nippon 2.58%, Kumul Petroleum(PNG 국영): 22.5% back-in 권리 보유
☞ 아프리카의 LNG 터미널도 건설됩니다. 다만 중국의 수입으로 중국의 LNG선 수주POOL이 될 수 있습니다.

▲ PetroChina, LNG선 시장 2028년부터 타이트 전망. LNG 해운 사업 적극 확대

World LNG Summit & Awards에서 Petrochina, Tokyo Gas, Gasco 등의 시황 설명
1) PetroChina International은 LNG 트레이딩 확대에 맞춰 LNG선 보유·운항 사업을 병행 확대
2028년 이후 LNG 운임 시장이 다시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LNG선 잔고가 많아 보이지만, LNG 공급 증가, 노후 LNG선 조기 폐선 증가(스크랩 연령 10년 단축) 등으로
공급·수요 균형이 2028년부터 빠르게 타이트해질 것으로 분석
PetroChina-Cosco JV(2023년 설립)는 최근 174,000-CBM LNG선 Qingcheng 인도(7번째 신조)
한편 중국 조선업의 LNG선 건조 기간 단축
과거 36개월 대비 대폭 축소 → 조선 효율·학습곡선 급상승으로 Qingcheng의 경우 17개월 소요
중국 조선소(예: Hudong-Zhonghua 등)는 시장 느슨해질 경우 인도 시점 조정 가능해, 공급·수요 탄력성(elasticity) 유연 관리 가능
2) Tokyo Gas는 스팟 의존은 위험하며, 직접 선대를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 중
LNG선 시장은 극도로 변동성 큼. 최근 스팟 운임 7배 급등 사례 언급
3) 싱가포르 Gasco는 138,000-CBM 증기터빈 LNG선은 시대 종료되었다며
배출 규제·효율성 관리 위해 선대 구성 고려 필요

△ 베트남, 첫 LNG 발전소 가동 시작. 2030년 LNG 비중 확대 가속

국영 PetroVietnam이 11월 말 Nhon Trach 3 LNG 발전소 가동 시작. Nhon Trach 4도 12월 중 가동 예정
두 발전소는 베트남 최초의 LNG 연료 발전소. 14억달러를 투자해서 발전용량은 1.6GW에 달함
연간 90억~120억 kWh로 남부 Dong Nai 지역 전력 수요의 60% 충당
베트남의 LNG-to-Power 에너지 전략(PDP VIII 개정)은 2030년 LNG 발전설비 용량을 22.5GW로 설정
LNG는 베트남의 풍력·태양광 전환 과정에서 전력 안정성을 보완하는 핵심 역할
기존 LNG 인프라 미흡하고, 투자 자금 조달 난항에, 가스터빈 공급 병목 등 장비 이슈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
1) LNG 발전소 오프테이크 보증을 현재 65%에서 최소 75%로, 15년까지 확대 검토
2) LNG 수입 관세를 2025년 3월부터 5% → 2%로 인하
3) LNG 수입 인프라 확충. Thi Vai LNG 터미널(2023년 개장, PV Gas 운영)이 Nhon Trach 3 & 4 발전소에 LNG 공급 예정
FSRU 프로젝트도 발표. 저장 용량 135,000~174,000-CBM, 재기화 능력 1,400만m^3/일. PV Gas가 배치 계획
Son My LNG 터미널도 미국 AES와 공동 추진. 2023년 착공 승인했고 가동 시점은 2028년(초기계획은 2026년)
수소 프로젝트도 추진. PV Gas는 2026년 1분기부터 Dinh Co Gas Processing Plant에서 그린수소 시험 생산 시작 예정
☞ 중국의 LNG 수입은 성장폭이 둔화되지만, 기존에 LNG를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 Glenfarne, Texas LNG 프로젝트는 Macquarie와 20년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FID 임박

Glenfarne Group(미국)이 Macquarie Energy의 Texas LNG 프로젝트와 기존 HoA(기본합의)를 20년, 0.5MTPA의 장기 SPA로 확정
Texas LNG의 기존 장기 계약은 EQT 2MTPA, Gunvor 0.5MTPA이고, 이번 Macquarie 계약 포함 시 3MTPA로 전체 4MTPA의 75% 완결
이에 Glenfarne는 이번 계약으로 FID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 FID 목표 시점은 2025년 말
Texas LNG의 EPC 계약자는 Kiewit

▲ Eni, 튀르키예 Botas와 첫 장기 LNG 공급 계약 체결

Eni(이탈리아)가 튀르키예 국영 가스기업 Botas와 첫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2028년 ~ 2038년의 10년 동안, 0.4MTPA 공급
이는 2025년 9월 체결된 3년 단기 계약(동일 물량)의 확장 버전
단기 계약 물량은 이미 2025년 11월 첫 인도 시작
Eni는 2030년까지 장기 계약 LNG 포트폴리오를 20MTPA로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를 위해 공급원 다변화. 콩고(Congo LNG Phase 2·Nguya FLNG), 모잠비크(Mozambique LNG),
미국 Venture Global CP2 LNG (연 2MTPA/ 20년 계약), 인도네시아 Merakes 가스전, 기타 아프리카·미국 프로젝트 등
Eni는 튀르키예를 "전략적 시장"으로 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인프라(터미널·가스망 등) 우수하며,
Eni의 아프리카·미국 LNG 프로젝트와 지리적으로 연계성 높기 때문
튀르키예는 LNG 비중 확대 중이며, 유럽 4번째로 큰 가스 수입국이자, 세계 LNG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국 중 하나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도 World LNG Summit 개막 연설에서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LNG 시장 중 하나"라고 강조

▲ Louisiana 주정부, Commonwealth LNG 프로젝트 허가 재발급. 환경단체 소송 후 한 달 만에 복원

Louisiana 주 보전·에너지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 Energy)가 Commonwealth LNG의 개발 허가를 11월 18일 재발급
이는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법원이 기존 허가를 취소한 지 약 한 달 만의 조치. 기존 허가는 2024년 8월부터 법적 분쟁 진행
주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을 더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주의 이익"이라고 설명
주정부는환경 정의(EJ) 지역 영향 포함 전체 자료를 검토했지만, 프로젝트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결론
재발급된 허가에는 기존 판결이 요구한 기후변화 영향, 온실가스(GHG) 배출 영향, 내용이 일부 추가됨
환경단체는 반발. Sierra Club은 재발급 문서를 검토 후 추가 법적 조치 검토 예정
주정부는 FERC의 기존 분석 인용. "GHG 배출은 국지적·즉각적 영향이 아닌, 전 지구적 대기 농도의 누적이 문제"
Louisiana 단일 프로젝트의 지역 즉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논리
프로젝트 운영사인 Kimmeridge은 올해 초 미 에너지부(DoE) 승인을 획득. FERC 승인도 기존 법적 도전 이후 다시 복원됨

▲ 포스코인터내셔널, Alaska LNG와 20년 장기 LNG offtake, 투자, 강재 공급 계약 체결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Alaska LNG와 LNG 장기 offtake + 프로젝트 투자 + 강재 공급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개발사 Glenfarne Group이 공식 발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년 동안 1MTPA 장기공급계약의 HoA(기본합의) 체결
이는 Alaska LNG 프로젝트 최초의 offtake HoA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프로젝트에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도 진행. 투자 규모는 비공개
또한 파이프라인용 강재 공급. 1300km(807마일) 파이프라인 건설용 강재의 '상당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공급
Washington D.C.에서 공식 서명식 진행. 포스코인터내셔널 CEO 이계인, Glenfarne CEO Brendan Duval과
미국 내각 인사인 Interior Secretary Doug Burgum, Energy Secretary Chris Wright, 알래스카 주 의원단(Nick Begich, Dan Sullivan 등)이 참석
Alaska LNG 프로젝트는 2단계로 구성. 1) North Slope: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807마일(1300km) 대형 가스 파이프라인
2) Nikiski의 20MTPA 액화용량의 LNG 액화플랜트 건설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Foresight Group(Ravi Mehrotra), 그리스 VLGC 매입. 선대 10척 목표로 확장 가속

Foresight Group(영국 런던, Ravi Mehrotra)가 VLGC 중고선 시장에 재진입
Swiss Marine(그리스) 보유 84,000-CBM VLGC Aeolian Pearl(2016년 건조) 인수
가격 비공개이지만, VesselsValue는 86백만달러로 평가
Swiss Marine은 해당 선박을 2022년 KSS Line(한국)으로부터 6,300만달러에 매입해서, 높은 차익 실현
이번 거래 후 Swiss Marine은 VLGC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 잔여 선대는 ultramax 1척 + kamsarmax 4척
이번 인수로 Foresight의 대형 가스선은 총 7척
VLGC는 30년까지 운항 가능하기에, 현 시점 매입은 경제성 높다고 설명. LPG 수요 증가 + 신연료/CO_2 운송 수요 확대 예상
최근 몇 년간 중고 VLGC를 적극 매입한 '소수의 바이어' 중 하나
최종 목표는 VLGC 10척 보유 및 글로벌 Top 10 진입
VLGC·대형 암모니아선 10척 이상 보유 선사는 전 세계 15개사
Foresight는 2024년에도 Spread Eagle(84,000-CBM, 2016년)를 Petredec로부터 81백만달러에 매입

▶ 컨테이너선

▽ George Economou의 TMS Group, 중국에 11,400-TEU[LNG D/F] 최대 10척 추가 발주

그리스 선주 George Economou 산하 TMS Group은 Zhoushan Changhong International Shipyard에 LNG D/F 11,400-TEU 8+옵션2척 발주
본 계약분 확정 8척은 대부분 2028년 인도 예정
TMS가 Changong에서 건조하는 11,400-TEU는 18척 + 옵션 2척이 됨
기존 10척(11,400-TEU, LNG D/F)은 2027년 4분기 ~ 2028년 말 인도 예정이며,
모두 Zim(이스라엘 선사)과 12년 장기 용선 계약 체결. Zim은 종료 시점에 매입 옵션 보유
첫 10척의 신조선가는 140백만달러였고, 이번 추가 8척도 신조선가가 동일한 것으로 예상
일부 시장에서는 TMS가 후속 8척을 투기발주하는 것으로 관측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유럽 선사들과 장기 용선 협의 진행 중이라고 언급
TMS는 한국 HJ중공업에도 7,900-TEU[스크러버+메탄올-READY] 4척을 2024년말에 발주. 발주(2024년 말)
2026년 3분기 ~ 2027년 4분기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08.5백만달러였음
이 4척도 Zim과 장기 용선(4만달러/일 이상)
TMS Group은 탱커·벌커·가스선 등 100척 이상 선대 운영 중이며, 50척을 건조 중

△ Zim 인수전 본격화. Hapag-Lloyd, MSC, Maersk까지 관심 표명

이스라엘 Globes가 최초 보도에 따르면 Hapag-Lloyd(독일)가 이스라엘 컨테이너선사 Zim 인수 제안서를 제출. MSC, Maersk도 관심 표명
Hapag-Lloyd와 MSC, Maersk 모두 공식 코멘트는 거부
Zim CEO Eli Glickman과 이스라엘 선주 Abraham(Rami) Ungar가 정식 인수 제안서 제출했고, 이에 따라 Zim 이사회가 전략적 검토 착수
회사 전체 매각 가능성, 자본배분 전략 등 다양한 옵션. 최근 며칠 사이 여러 추가 인수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Zim은 시가총액 2.4십억달러. 글로벌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 순위로는 9위
1위 MSC, 2위 Maersk, 5위 Hapag-Lloyd(7.4% 점유)
Zim은 금융·거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 이사 2명(Yair Avidan, Yoram Turbowicz) 신규 선임
자문사로는 Evercore, Meitar Law Offices, Skadden Arps 참여
과거 지배주주였던 Idan Ofer의 Kenon Holdings가 지분을 매각. 인수 가능성 열린 구조로 변화
다만, 노조가 강력히 매각을 반대. 특히 Hapag-Lloyd 인수 시나리오에 반대
Hapag-Lloyd 대주주에 Qatar Holding, Saudi PIF 포함해,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는 주장
또한 Sword of Iron 전쟁 시 Maersk·MSC 포함 외국 선사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Zim만이 식량·의약품·탄약을 공급해 국가를 지켰다고 강조
노조는 정부의 Golden Share(특수거부권)로 거래 차단 가능하다고 언급
소수주주도 반대 움직임. Zim 지분 8% 보유 소수주주 그룹이 인수 반대 움직임 전개. 공백이 된 지배구조를 채우기 위해 이사 3명 후보 추천
팬데믹 컨테이너 호황기 동안 월가의 스타 IPO로 평가. 그러나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 매우 큼
Idan Ofer는 약 10년 전 Zim에 자본을 투입해 회생시킨 후. 2024년 성공적으로 엑시트

△ 동원그룹, HMM 인수 재추진… 10조원 규모 빅딜 재부상

동원그룹이 한국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인수를 다시 추진
최근 10조원(KRW 10trn, 약 68억달러) 규모의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김재철 명예회장이 직접 "즉시 재검토"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
동원은 2023년 HMM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실패했지만,
1위를 차지했던 Harim-JKL 컨소시엄(6.4조원 제안)이 KDB·KOBC와의 이견으로 2024년 2월 거래 무산
당시 동원그룹의 제안가는 6.2조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HMM은 2016년 유동성 위기 이후 KDB·KOBC 관리 체제에 들어가며 매각 대상이 됨
현재 글로벌 8위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100만-TEU 이상 보유(Alphaliner 기준)
HMM은 최근에도 대규모 선대 확장 중. 2025년 11월에도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에 13,400-TEU LNG D/F 12척을 발주
HMM은 국가 전략물류 인프라로 평가되며 시장 영향력이 큼
2024년 초 매각 무산 이후 재매각 가능성이 재부상하면서 동원이 선제적으로 '자금 동원 능력' 점검 중. KDB·KOBC 보유지분 57.9%가 향후 재매각 시 거래 대상

▶ 탱커

▲ 한화오션, 2주 만에 두 번째 VLCC 수주

일주일 전에 그리스 Maran Tankers로부터 VLCC 4척을 수주한 한화오션은 또 VLCC 2척 수주를 공시. 발주처는 오세아니아 선주로만 기재
2028년 12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29백만달러로 컨벤셔널 추진으로 추정
2025년 연간 누적 수주는 79.6억달러(2024년 89.8억달러)
VLCC 시황은 최근 용선료가 10만달러/일을 돌파하며, 운임 폭등 중
12월 1일 기준 Baltic Dirty Tanker Index 1,452(-6p), VLCC TCE(Time-Charter Equivalent) 11만5,143달러/일(-3,178달러)로 두 지표 모두 연중 최고치에 근접

▽ Zodiac Maritime, VLCC와 9,000-TEU 등 16척을 중국에 발주

영국 선주 Zodiac Maritime(Eyal Ofer)은 VLCC 최대 4+4척, 컨테이너선 9,000-TEU, 6척의 16억달러를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에 발주
Zodiac의 12년만의 VLCC 신조 투자이며, Hantong으로의 첫 발주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컨벤셔널 추진이지만, 최신 고사양 에너지 절감 기술(energy-saving device) 적용
조선소 측은 최근 겨울 VLCC 스팟 급등(10만달러/일 돌파) 이후. 신조선가를 5~10% 인상한 상태
2028년 인도 예정, 9,000-TEU 6척의 신조선가는 100백만달러 이상
Zodiac은 2013년(부친 Sammy Ofer 사후) 이후 VLCC 신조 발주는 처음
신조 발주 재개 배경은 탱커 선대 재투자 및 리뉴얼 전략. 기존 VLCC 선대의 평균 선령 12년으로, 회사 전체 선대 평균 9년보다 높아 교체 수요 발생
2024년에 297,000-DWT Horten(2018년 건조)를 120백만달러에 매입했고
2025년에는 중국·일본·한국 조선소로부터 17척의 신조선 인도 완료. PCTC, 대형 컨테이너선, 핸디사이즈 케미컬선 등
Zodiac의 기존 잔고는 suezmax 4척, aframax PC선 2척, 6,000-TEU 컨테이너선 5척이고,
Japan Marine United, 삼성중공업, Jinling Shipyard에서 건조 중

▽ Jiangsu Hantong Group의 최대 19척 신조 계약

중국 Jiangsu Hantong Group이 2028~2029년 인도 일정으로 최대 19척 신조 계약을 확보. 일부 옵션 물량 포함
선종은 VLCC, 중형 피더 컨테이너선, newcastlemax, kamsarmax 벌커 등
발주처 비공개, 다만 일본·독일·영국 등 해외 선주사 다수 참여
Trafigura 발주(추정) VLCC 2척
MPC Container Ships(독일)의 4,500-TEU 컨테이너선 4척+2척. 2028년 상반기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58백만달러
일본 선주 Fukujin Kisen의 Newcastlemax 벌커. Itochu Corp(일본)이 딜 중개. Fukujin Kisen의 Jiangsu New Hantong로의 첫 신조 발주
82,000-DWT 벌커(Kamsarmax)는 기존 고객인 Oldendorff Carriers, Atlantska Plovidba으로 추정
Jiangsu Hantong Group은 Meng Chengjun이 창업했고, 초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2005년부터 상업선 시장 진입
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Jiangsu Hantong WinG Heavy Industry의 2개 조선소 운영
현재 53척 잔고 보유. Trafigura VLCC 8척, Cardiff Marine의 suezmax 4척, 한국 Kmarin의 newcastlemax 2척
Jiangsu Hantong WinG Heavy Industry은 43척 잔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newcastlemax 및 ultramax 등 건조
일부 야드 부지는 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에 탱커 건조용으로 임대 중

▶ 오프쇼어/디펜스

▲ General Dynamics NASSCO-DSEC-삼성중공업 3자 간 양해각서(MOA) 체결

미국 General Dynamics NASSCO, 장기 파트너 DSEC, 한국 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장 조선 설계·생산자동화·기술 협력을 위한 3자 MOA 체결
상선, 군함, 기타 정부 선박 프로젝트 전반에서 공동 설계·건조 역량을 묶는 파트너십
협력 범위 및 대상 프로젝트는 미국 해군 Next Generation Logistics Ship(NGLS) 등의 상선, 해군함, 기타 정부 선박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를 목표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한국 조선 협업 경험을 미국 내 차세대 조선 프로젝트에 활용
General Dynamics NASSCO(미국)은 1950년대부터 주요 해군 보조함·상선 설계·건조 선도 업체. 지금까지 150척 이상 인도
현재 해군 John Lewis급 함대급유함(T-AO 205) 20척급 시리즈 건조 중
차기 잠수함 모선(Submarine Tender, AS-X)급 설계
최근 상선 프로젝트도 ConRo선, 컨테이너선, MR 탱커 등의 선종 건조. 다수는 DSEC 및 한국 파트너들과 공동 설계
DSEC(한국 설계·엔지니어링 회사)는 선박 설계, 자재 조달, 품질관리, 조선소 운영·개발 컨설팅, 물류 지원, 친환경 개조(eco retrofit) 등 풀 패키지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30년 이상 경험. 미국 전역에서 미국 건조선 설계·자재 패키지 지원하며, 상선·해군함·정부선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
이번 MOA로 NASSCO와의 기존 협력 + 삼성중공업 역량 결합해, 미국 조선·해운 산업에 더 큰 가치 제공 의지 표명
삼성중공업은 세계 선도 조선소 중 하나로, 설계·조달·건조·시운전·인도까지 전 과정 수행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인력·생산 인프라를 미국 조선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입장
미국 해군 NGLS 등 차세대 보급함, 상업선 및 정부 프로젝트에서 한·미 조선 협력 구조가 한층 제도화·고도화되는 계기로 평가 가능

△ Shell, 호주 Crux 가스전 FLNG 연계 개발을 승인 받음

Shell이 호주 규제기관 NOPSEMA로부터 Crux 가스전(25억달러) 개발 관련 승인 획득
Crux는 Prelude FLNG에 공급할 backfill gas 확보 목적
Crux 생산 가스는 165km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Prelude FLNG로 공급 예정
NOPSEMA 11월 말에 완결(Completion), 핫 커미셔닝(Hot Commissioning), 시운전(Start-up), 운영(Operation) 관련 환경 계획(EP) 승인
5개 시추정(Well) 작업 포함. 천공(perforation), 클린업(clean-up), 트리(trees)와 topside 연결 작업
예상 소요 기간은 3~10개월, 가스터빈 발전기 등 핫 커미셔닝 작업 1~5개월, 시운전·생산 개시 소요 9~24개월
수개월에 걸쳐 Crux에서 생산된 탄화수소를 Prelude FLNG로 수출 가능
무인운전(Normally Unmanned). 유지보수, 계획·비계획 방문, 턴어라운드, 개보수(Workover) 등 모든 운영 활동 승인
Crux 관련 EP 기반 작업은 2026년부터 착수(규제 승인 및 프로젝트 일정 연동)
첫 가스 생산은 2027년 가능성, FID는 2022년 5월 결정
Crux 프로젝트는 호주 북서부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Browse Basin 북부, 수심 95~280m
광구 AC/L10,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WA-33-PL, AC/PL1
FEED는 Wood, KBR이 수행했고
McDermott(미국)이 Crux 플랫폼 재킷(jacket)을 제작했고
Seatrium(싱가포르)(기존 Sembcorp Marine) 10,000톤 topside 제작
Crux 플랫폼 처리 능력: 550MMcf/d(일 5억5천만 입방피트)
Wood Mackenzie에 따르면 가스전은 1.6Tcf(1.6조 입방피트), 콘덴세이트 6,600만 배럴, LPG 4,000만 배럴

△ Eni, 서아프리카(콩고) FLNG 프로젝트 2단계 가동. 2026년 초 첫 LNG 수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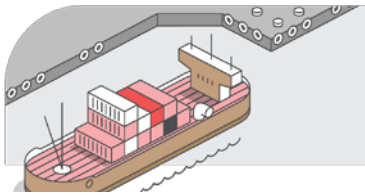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Eni(이탈리아)가 콩고 해상 FLNG 프로젝트 2단계(Phase 2) 가동 시작 발표. 첫 LNG 수출은 2026년 초 예정
Nguya FLNG가 현장(콩고 Pointe-Noire 인근 50km 해상)에 도착하며 가스 주입 개시
2.4MTPA, 45,000-CBM × 4기 LNG 탱크. 고효율 액화 기술 적용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Zero-flaring(가스 소각 제로) 솔루션 적용
Marine XII 개발(2단계)의 구성 요소는 3개 생산 플랫으로 구성
Saipem의 Scarabeo 5 시추선 개조해, 가스 분리·압축용 부유식 생산 설비(FPU)
압축된 가스를 Ngyua FLNG로 공급하고, 기존 Tango FLNG와의 통합
Tango FLNG는 2023년 말부터 운영해온 0.6MTPA 용량
Nguya(2.4) + Tango(0.6)로, 총 3.0 Mtpa LNG 처리 능력 확보
Litchendjili 가스전은 두 FLNG를 통해 장기적 개발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며
Nguya FLNG 건조 시작해서, 가동까지 35개월(약 3년)로 초단기 개발 속도

▽ Shell, Argentina LNG 프로젝트에서 철수. 그러나 YPF는 계속 사업 추진

Shell은 아르헨티나 국영사 YPF와 지난해 체결한 프로젝트 개발 협정(PDA) 이후 1년 만에 Argentina LNG 프로젝트에서 철수 결정
프로젝트 범위의 중대한 변화 등 여러 프로젝트 역학으로 인해 더 이상 참여 지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Shell은 2024년 12월에 Petronas의 지분 50%를 인수하며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한 상태
기존 프로젝트는 12MTPA. FLNG 2기 기반 개발 구조였는데
Shell은 당시 이를 "LNG 사업 성장 전략과 부합"한다고 언급했으나 지금은 입장이 바뀜
YPF는 Shell을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고 언급. FID 시점은 2026년 중반 전후로 예상
Shell과 관련된 프로젝트 단계는 12MTPA → 6MTPA로 절반 축소
Shell 철수 이후 Eni + XRG + YPF 3자 구성이 우선 개발 단계로 이동
Eni-XRG 단계 프로젝트는 12MTPA, Vaca Muerta 셰일가스이며, 수출 개시 시점은 2030~2031년으로, 프로젝트 승인 후 약 4년 뒤
지난달에는 Eni + YPF가 XRG(= ADNPCO 투자 부문)와 잠정적(non-binding) 참여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
전체 프로젝트는 Shell 철수에도 불구하고 YPF는 프로젝트 지속 의지가 강함
프로젝트 구조는 다단계·다파트너 체제로 재조정되는 중
FID는 2026년 중반, 첫 LNG 수출은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 높음

△ Chevron, Gorgon LNG Stage 3에 약 20억달러 투자 확정(FID)

Chevron과 공동사업자들이 Gorgon LNG 프로젝트(Stage 3)에 A$3십억(미화 약 19.8억달러) 투자 확정
Gorgon 프로젝트의 원래 확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첫 subsea tie-back 개발
Stage 3 개발 범위는 Geryon, Eurytion 가스전이며, 주요 작업은 subsea manifold 3기 설치, 35km 생산 플로우라인 설치, 기타 해저 인프라 구축
Geryon·Eurytion 두 가스전에서 6개 생산정 시추 예정
호주 서호주(WA) Barrow Island 인근의 대형 가스전. Barrow Island에서 약 100km 북서, 수심 약 1,300m
개발 시추를 2026년 3분기 시작하고, 해저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2027년 3분기 진행해, 생산 개시 2028년 예정
Gorgon 프로젝트는 15.6MTPA. 3개 train
Stage 3는 기존 인프라를 최적화하며, Jansz-Io 압축 프로젝트. Gorgon Stage 2 infill 개발 등을 보완하는 역할
Chevron은 Greater Gorgon Area 내 확인된 추가 가스전인 Chandon, Chrysaor, Dionysus, Semele, West Tryal Rocks 중 일부를 Stage 4 후보군으로 분석 중
Gorgon JV는 Chevron47.33% (운영사), ExxonMobil25%, Shell25%, Osaka Gas1.25%, MidOcean1%, JERA0.417%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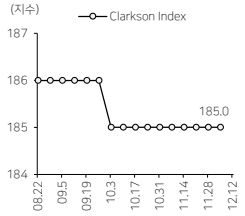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2.07 [8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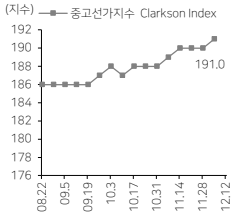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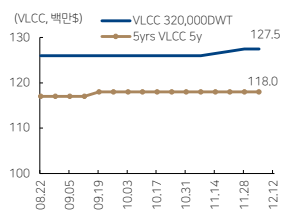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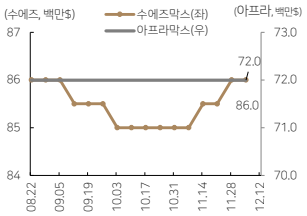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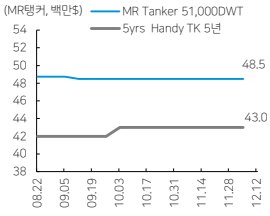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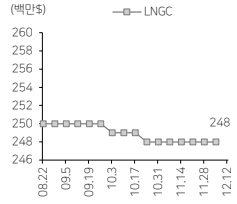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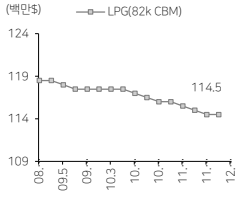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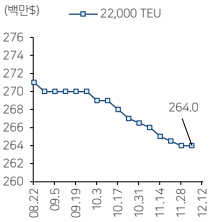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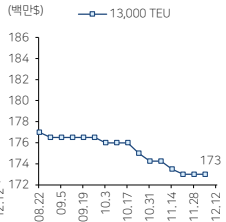
▶ 가스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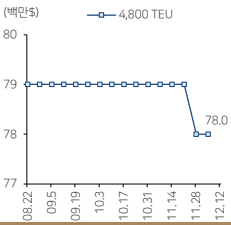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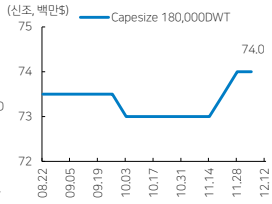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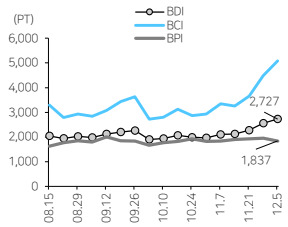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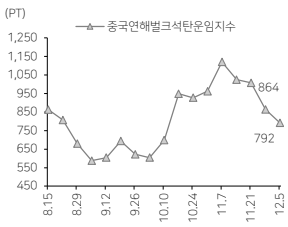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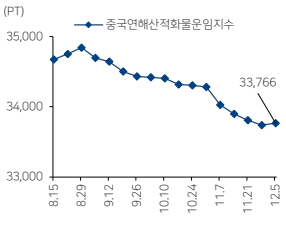
운임지수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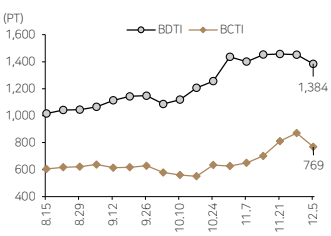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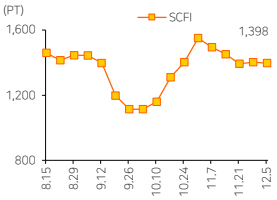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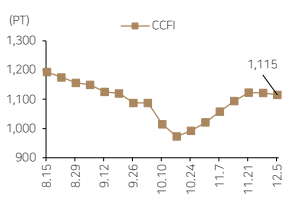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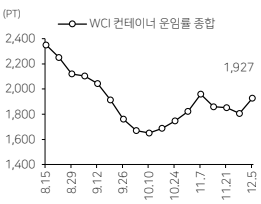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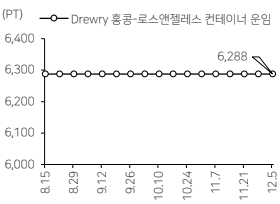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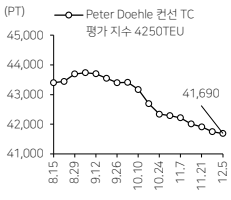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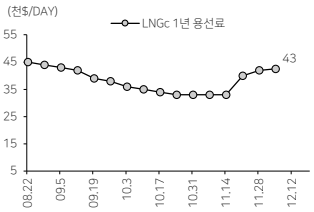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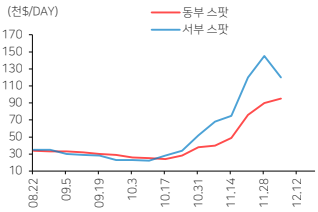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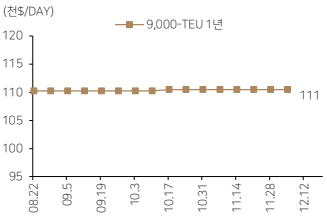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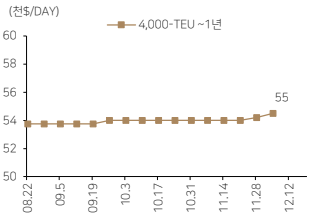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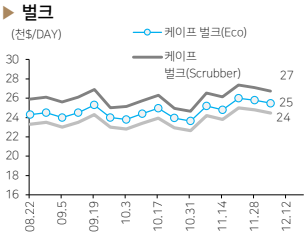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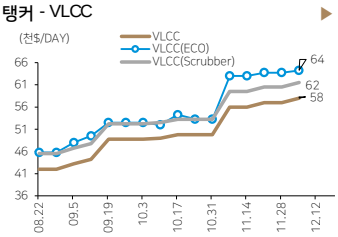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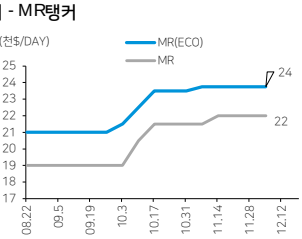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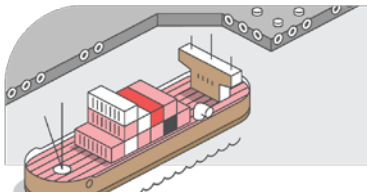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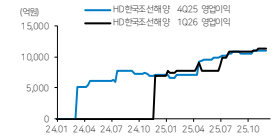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2.07 [8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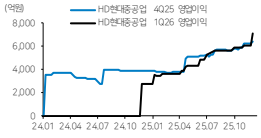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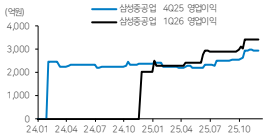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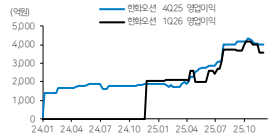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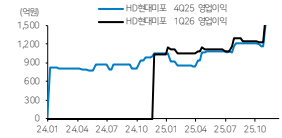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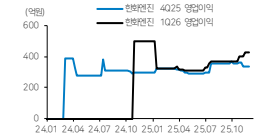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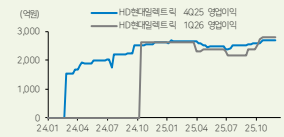
▶HD현대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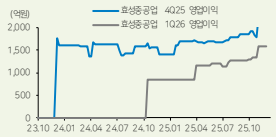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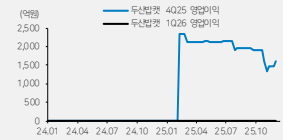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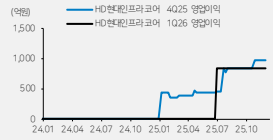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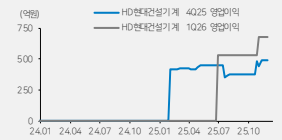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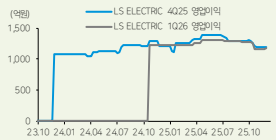
▶HD현대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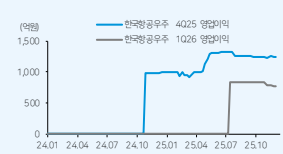
▶HD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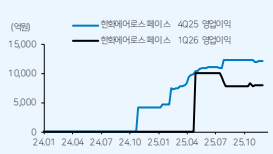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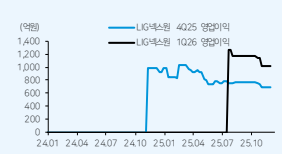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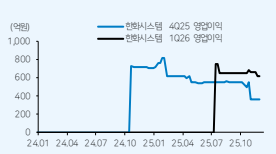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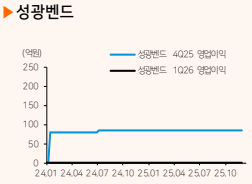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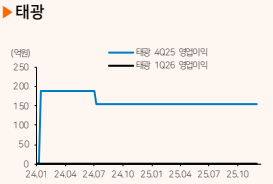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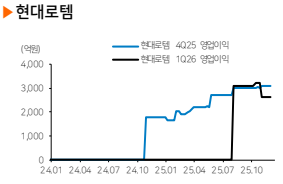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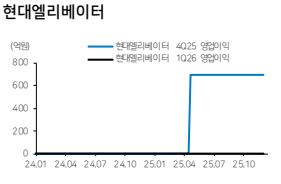
▶태광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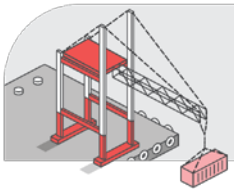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5 E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11.08	25.11.15	25.11.22	25.11.29	25.12.05	Change(%)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VALUATION 2025 PER	종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31,420	33,087	31,783	31,864	31,939	31,939	33,124	33,326	33,326	5%	4%	13.0	432,000
	HD현대중공업	15,004	15,135	14,815	14,973	15,719	15,719	15,719	15,751	15,633	4%	-1%	34.2	534,000
	삼성중공업	560	696	700	747	758	758	755	755	755	1%	0%	33.7	25,450
	한화오션	2,511	2,709	3,112	3,192	3,166	3,166	3,131	3,107	3,100	-3%	-2%	35.0	108,500
	HD현대미포	6,099	6,134	6,068	6,049	7,993	7,993	8,119	8,119	8,119	34%	2%	27.5	223,000
조기	한화엔진	968	1,166	1,166	1,183	1,134	1,151	1,179	1,179	1,179	0%	4%	36.6	43,100
	STX엔진	648	648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0%	0%	26.9	35,050
	HD현대마린엔진	1,277	1,332	1,706	1,735	1,963	1,963	2,019	2,019	2,019	16%	3%	41.2	83,100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5,665	5,254	4,896	4,896	6,000	5,805	5,805	5,805	5,805	19%	-3%	16.6	96,200
	HD현대인프라코어	748	895	913	913	945	987	987	987	987	8%	4%	15.1	14,920
	두산밥캣	5,459	5,467	5,124	5,054	4,548	4,470	4,470	4,470	4,468	-12%	-2%	13.4	59,8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529	456	452	445	348	313	307	306	306	-31%	-12%	263.1	80,400
	HD현대일렉트릭	18,905	18,617	18,693	18,795	19,408	19,514	19,514	19,557	19,798	5%	2%	42.0	832,000
	LS ELECTRIC	11,124	10,030	10,010	10,017	9,515	9,555	9,555	9,541	9,444	-6%	-1%	54.5	515,0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531	2,510	2,670	2,630	2,274	2,269	2,271	2,229	2,229	-15%	-2%	47.6	106,2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5,098	31,558	31,478	32,830	32,619	32,252	32,104	32,117	32,117	-2%	-2%	27.9	895,000
	LIG넥스원	13,442	13,836	14,472	14,368	14,113	14,189	14,189	14,099	14,099	-2%	0%	26.4	372,500
	한화시스템	1,023	1,086	990	990	1,206	1,206	1,206	1,206	1,206	22%	0%	39.1	47,200
	현대로템	6,911	7,071	7,245	7,380	7,584	7,546	7,546	7,545	7,545	2%	-1%	24.1	182,000
	현대엘리베이터	6,840	8,552	8,552	8,552	8,552	8,552	8,552	4,298	4,295	-50%	-50%	21.4	91,900
피팅	성광벤드	1,844	1,659	1,525	1,496	1,442	1,468	1,468	1,468	1,468	-2%	2%	18.7	27,450
	태광	1,879	1,547	1,613	1,663	1,702	1,713	1,713	1,713	1,875	13%	10%	12.7	23,850
	하이록코리아	3,644	3,644	3,644	3,804	3,804	3,804	3,804	3,804	3,804	0%	0%	8.5	32,400

그룹	종목	2025 B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11.08	25.11.15	25.11.22	25.11.29	25.12.05	ROE 2025	2026	VALUATION 2025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82,250	183,176	181,647	181,475	182,179	182,179	183,215	183,016	183,016	18%	24%	2.4
	HD현대중공업	75,843	75,760	75,595	75,783	77,057	77,057	77,183	77,217	65,166	24%	34%	8.2
	삼성중공업	6,113	6,275	6,270	6,268	6,089	6,089	6,090	6,090	6,090	12%	20%	4.2
	한화오션	18,454	18,624	19,025	19,088	18,990	18,990	18,960	18,933	18,925	16%	21%	5.7
	HD현대미포	56,515	56,677	56,356	56,348	58,147	58,147	58,373	58,373	58,373	14%	20%	3.8
조기	한화엔진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827	5,827	5,827	20%	27%	7.4
	STX엔진	8,298	8,298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15%	62%	4.1
	HD현대마린엔진	10,966	10,941	11,040	11,090	11,490	11,490	11,527	11,527	11,527	18%	31%	7.2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00,299	101,410	102,916	102,916	103,729	103,613	103,613	103,613	103,613	6%	10%	0.9
	두산밥캣	73,000	73,206	75,292	75,569	73,710	75,085	75,085	75,085	75,828	6%	8%	0.8
	HD현대인프라코어	10,174	10,471	10,668	10,668	10,683	10,683	10,683	10,683	10,683	9%	13%	1.4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696	12,437	12,463	12,426	12,120	12,120	12,099	12,088	12,088	3%	5%	6.7
	HD현대일렉트릭	55,634	54,755	54,834	54,945	55,569	55,678	55,678	55,757	55,757	36%	40%	14.9
	LS ELECTRIC	69,740	68,409	68,409	68,414	68,057	68,097	68,097	68,110	68,076	14%	19%	7.6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19,678	19,568	19,668	19,627	19,298	19,333	19,335	19,315	19,315	12%	18%	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8,578	155,840	164,645	170,261	171,562	171,183	172,178	172,064	172,064	19%	24%	5.2
	LIG넥스원	66,204	66,690	66,674	66,548	58,041	57,015	57,015	57,645	57,645	24%	28%	6.5
	한화시스템	14,015	14,043	15,469	15,469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7%	8%	2.7
	현대로템	25,426	25,560	25,678	26,203	27,128	27,107	27,107	27,317	27,317	28%	31%	6.7
	현대엘리베이터	35,782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31,305	31,305	14%	15%	2.9
피팅	성광벤드	21,956	21,579	21,466	21,460	21,400	21,447	21,447	21,447	21,447	7%	10%	1.3
	태광	23,633	22,839	22,982	23,056	23,128	23,129	23,129	23,129	23,156	8%	9%	1.0
	하이록코리아	37,176	37,176	37,176	39,135	39,135	39,135	39,135	39,135	39,135	10%	11%	0.8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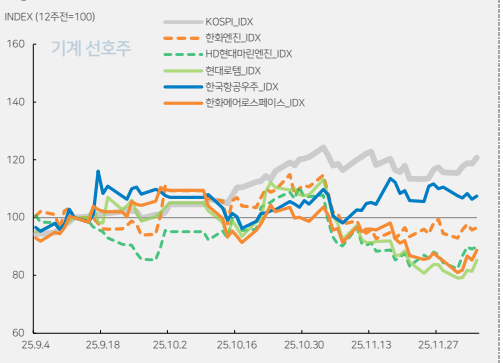
2025.12.07 [800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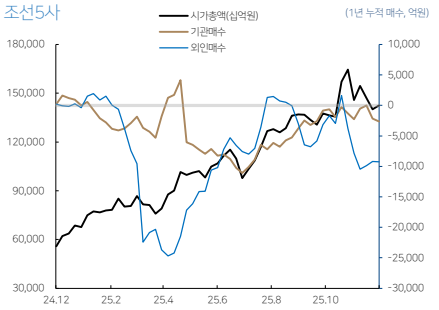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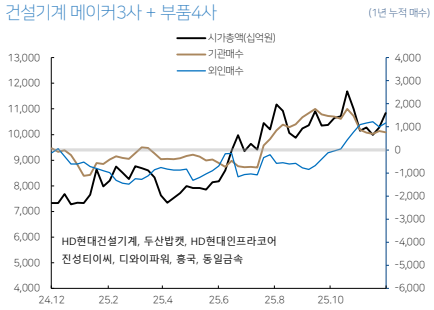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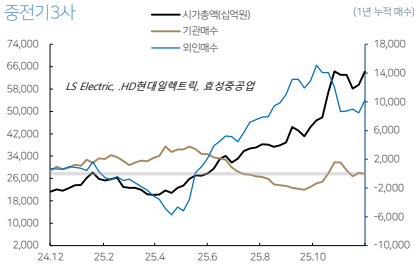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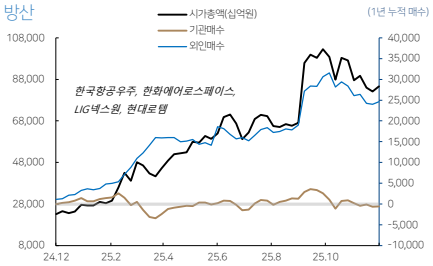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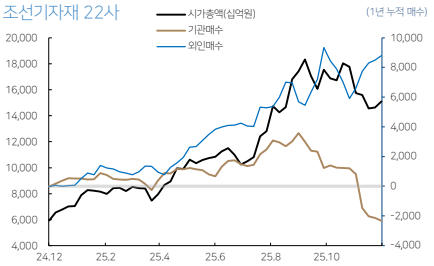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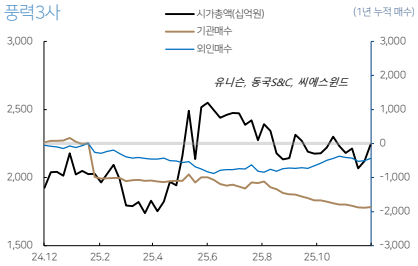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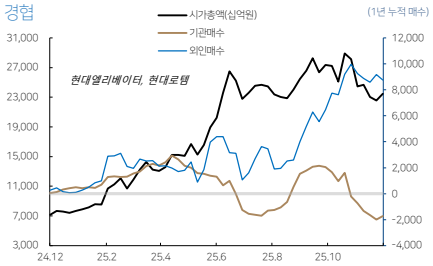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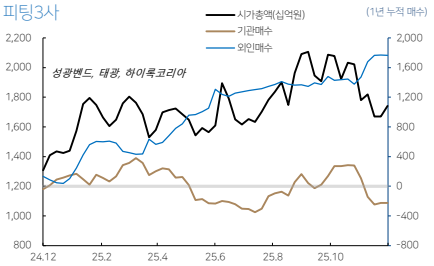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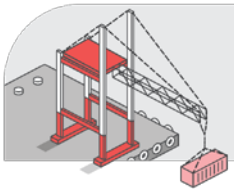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5.12.07 [8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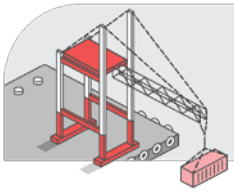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134	2.6%	2.4%	10.1%		66%	63%
	HD현대인프라코어	1,914	2.0%	6.0%	6.3%		114%	88%
	두산밥캣	3,892	7.7%	-0.3%	12.0%		36%	69%
대형	CATERPILLAR	282,271	4.8%	6.0%	43.9%		53%	165%
	KOMATSU	31,353	0.0%	0.8%	1.6%		24%	65%
	HITACHI CM	6,455	2.5%	6.3%	1.7%		34%	49%
	VOLVO	64,132	4.9%	12.6%	2.0%		3%	52%
중국	SANY	27,564	4.8%	-2.4%	1.3%		26%	26%
	XCMG	18,416	7.4%	2.7%	15.9%		39%	106%
소형	DEERE	128,436	2.3%	0.3%	-0.7%		7%	9%
	CNHI	11,766	0.1%	-9.8%	17.6%		-21%	-41%
	TAKEUCHI	2,269	1.0%	12.2%	39.3%		49%	140%
	TEREX	3,269	7.8%	6.1%	-0.2%		-6%	14%
	SUMITOMO HI	3,406	1.1%	4.8%	30.5%		34%	49%
	SANDVIK	38,809	2.1%	1.1%	21.7%		37%	54%
	UNITED RENTALS	50,708	-2.2%	-5.6%	16.7%		-7%	126%
건설기계	디와이파워	98	-0.3%	7.4%	4.8%		19%	11%
부품	진성티이씨	194	4.0%	4.0%	10.6%		49%	-4%
	우림기계	94	24.3%	61.2%	102.6%		136%	58%
	흥국	43	1.6%	7.3%	1.2%		3%	-15%
	동일금속	49	0.5%	3.4%	-2.1%		-3%	-67%
	KUBOTA	16,675	-0.2%	13.2%	30.4%		22%	13%
	가야바	1,462	-0.3%	11.8%	18.0%		77%	164%
	Hengli	21,423	11.5%	29.4%	26.3%		106%	73%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7,048	-2.8%	6.8%	11.9%		93%	1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122	4.3%	-7.3%	0.6%		203%	1216%
	LIG넥스원	5,586	-2.3%	-22.5%	-23.6%		98%	345%
	한화시스템	6,054	2.2%	-13.4%	-7.3%		123%	331%
	아스트	165	4.3%	14.9%	11.1%		24%	-87%
	퍼스텍	129	-3.2%	-10.0%	-6.9%		39%	30%
	하이즈항공	29	2.7%	-0.2%	-12.0%		62%	-29%
	오르비텍	77	4.0%	4.0%	11.7%		110%	-15%
방산/항공	Boeing	153,456	6.8%	2.2%	-14.0%		31%	12%
	Airbus	181,463	-3.8%	-7.4%	9.9%		27%	76%
방산	LOCKHEED MARTIN	104,638	-1.2%	-4.4%	-0.8%		-12%	-6%
	Raytheon Technologies	229,406	-2.2%	-1.7%	7.9%		45%	74%
	Northrop grumann	78,349	-4.1%	-3.8%	-7.0%		16%	4%
	GENERAL DYNAMICS	91,114	-1.3%	-1.6%	3.9%		24%	37%
항공	BOMBARDIER	16,546	0.0%	17.9%	41.0%		117%	325%
	EMBRAER	11,451	-1.4%	-4.2%	9.8%		63%	517%
항공 부품	ROLLS ROYCE	121,476	1.5%	-6.3%	1.4%		85%	1053%
	SAFRAN	144,481	0.9%	-4.6%	2.8%		38%	150%
	SPIRIT AERO	4,642	7.5%	10.8%	-5.0%		23%	42%
	TRIUMPH	#N/A N/A	0.0%	0.0%	0.0%		37%	121%
	MHI	88,702	3.4%	-8.4%	8.8%		77%	652%
	KHI	11,565	8.2%	-10.7%	18.5%		71%	256%
	FHI	15,649	-5.5%	2.5%	13.0%		35%	49%
	IHI	21,050	8.4%	-4.2%	36.6%		151%	457%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263	6.3%	-0.1%	5.6%		11%	-36%
	SK오션플랜트	764	-2.9%	-12.1%	-13.6%		49%	-20%
	세진중공업	691	1.7%	-12.4%	17.8%		149%	215%
	유니슨	184	5.1%	-7.0%	14.6%		87%	-20%
	동국S&C	79	0.0%	-1.7%	-13.9%		-8%	-60%
	태웅	378	17.0%	3.3%	-25.9%		180%	209%
	VESTAS	25,149	4.3%	6.5%	25.8%		63%	-21%
	GOLDWIND	9,032	2.9%	-5.5%	38.8%		44%	39%
	NORDEX	7,120	0.3%	-3.6%	24.7%		127%	106%
중전기	LS Electric	10,449	10.8%	14.6%	80.3%		240%	831%
	효성중공업	12,693	4.8%	-10.3%	61.7%		371%	2354%
	HD현대일렉트릭	20,386	6.9%	-4.5%	69.1%		135%	2017%
	ABB	134,443	1.7%	1.4%	9.3%		13%	101%
	Schneider	158,256	1.9%	-2.8%	12.1%		-6%	70%
	WEG	36,185	5.5%	7.3%	24.0%		-16%	26%
	Crompton Greeves	1,861	-2.0%	-8.2%	-21.2%		-36%	-27%
	TBEA	15,713	0.9%	-8.8%	55.3%		68%	36%
피팅	성광벤드	503	6.3%	-4.0%	-16.6%		33%	106%
	태광	429	4.6%	-7.4%	-5.2%		53%	48%
	하이록코리아	259	2.7%	-5.1%	-2.7%		34%	60%
발전	두산에너빌리티	34,835	4.2%	-1.5%	29.8%		343%	401%
	비에이치아이	1,252	32.6%	31.9%	2.6%		336%	807%
	S&TC	616	14.6%	-1.9%	-28.5%		165%	552%
	DONGFANG	10,427	0.6%	-2.9%	9.1%		41%	2%
	BHEL	10,749	-4.4%	3.9%	33.6%		12%	225%
	MHI	88,702	3.4%	-8.4%	8.8%		77%	652%
	IHI	21,050	8.4%	-4.2%	36.6%		151%	457%
	SIEMENS	217,556	2.5%	-4.8%	-1.5%		21%	76%
	General Electric	299,504	-4.9%	-6.9%	3.2%		62%	460%
	ALSTOM	12,379	2.1%	6.5%	12.0%		7%	1%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13,583	4.4%	-15.1%	-4.6%		288%	564%
	ALSTOM	12,379	2.1%	6.5%	12.0%		7%	1%
	Bombardier	16,546	0.0%	17.9%	41.0%		117%	325%
	CNR	60,505	1.5%	0.2%	2.1%		-10%	-20%
	CAF	2,080	-4.1%	-3.3%	0.8%		54%	88%
	CSR	27,883	-1.3%	-2.2%	-2.7%		28%	92%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434	3.6%	28.1%	17.0%		77%	204%
	KONE	36,751	1.8%	2.2%	11.0%		20%	23%
	THYSSENKRUPP	6,811	0.3%	2.0%	36.2%		209%	113%
	MITSUBISHI ELEC.	60,801	5.8%	5.4%	25.8%		70%	228%
	HITACHI	144,064	-1.7%	-2.3%	20.6%		21%	244%
	SHANGHAI ELEC.	16,867	0.7%	-10.1%	11.1%		33%	121%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53	11.7%	17.6%	18.2%		37%	8%
기타	와이지원	127	7.7%	11.4%	4.3%		10%	-18%
	S&T중공업	975	1.3%	-13.8%	-30.9%		148%	386%
	Amada	3,845	-2.1%	1.4%	-3.8%		25%	70%
	Moriseiki	2,480	-1.2%	3.6%	-12.7%		8%	52%
	Jtekt	3,425	-1.6%	4.6%	14.9%		54%	75%
	Okuma	1,630	-0.4%	10.3%	6.5%		17%	49%
	Makino	1,710	-3.5%	-5.6%	-7.5%		57%	136%
	Gildemeister	4,286	-0.4%	0.4%	0.9%		4%	12%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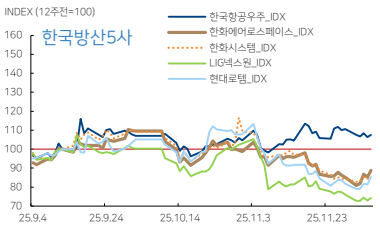
2025.12.07 [800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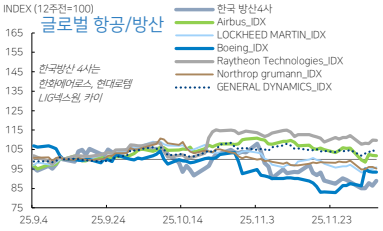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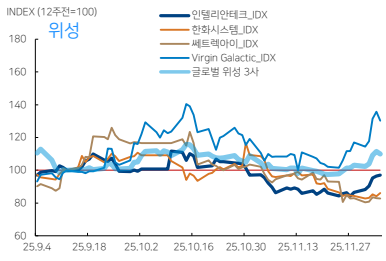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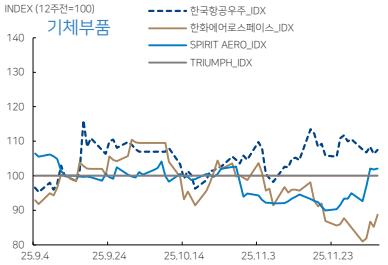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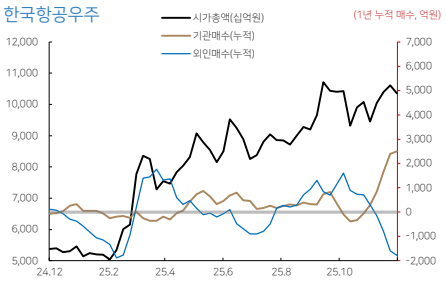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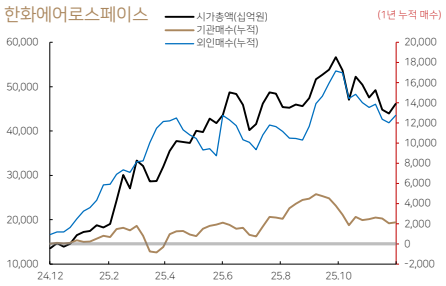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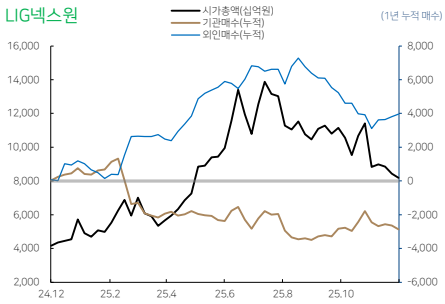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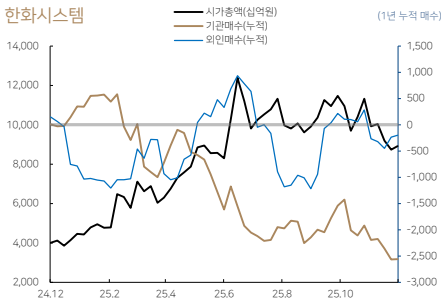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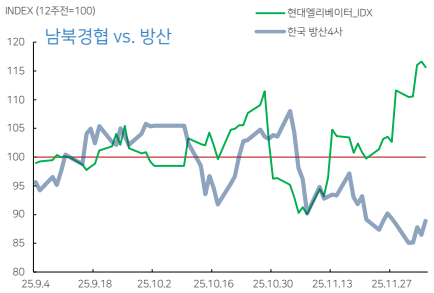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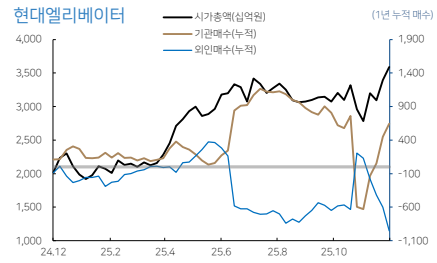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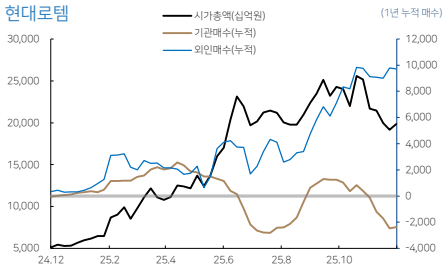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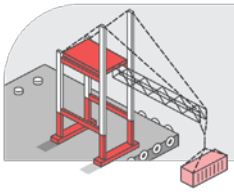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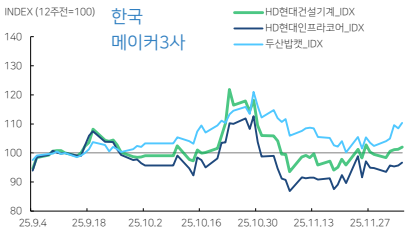
2025.12.07 [800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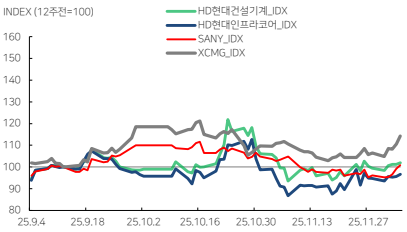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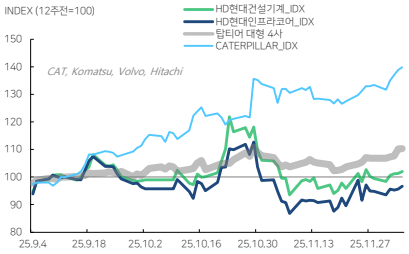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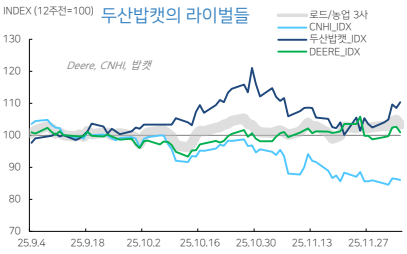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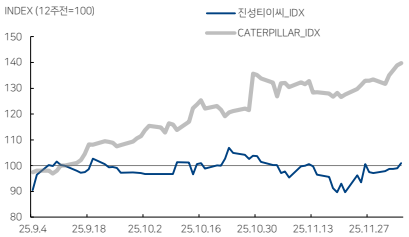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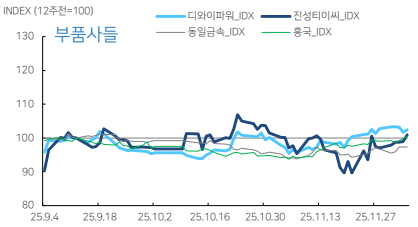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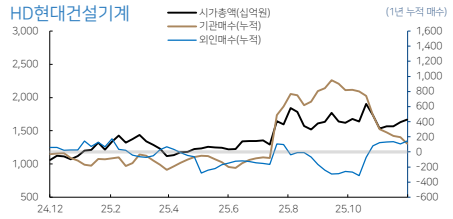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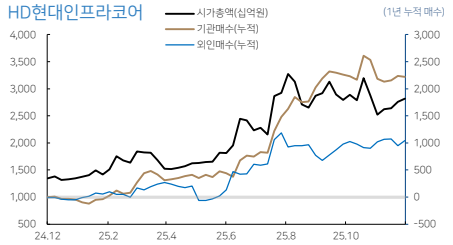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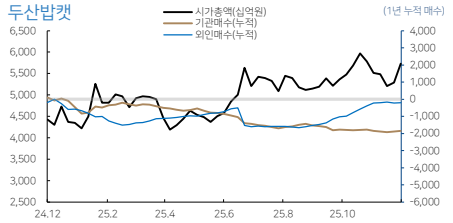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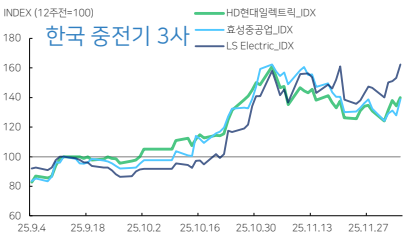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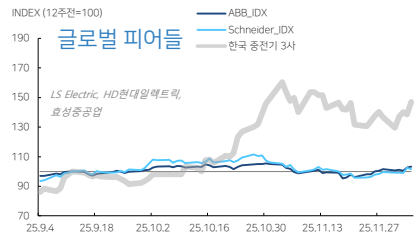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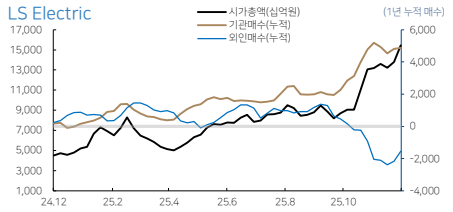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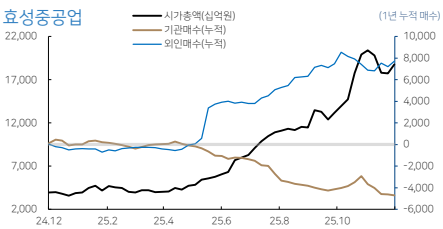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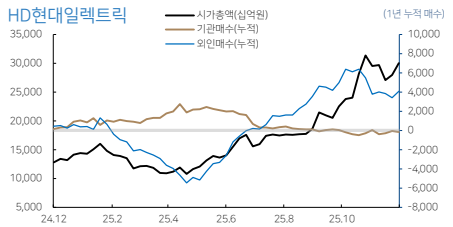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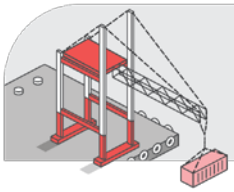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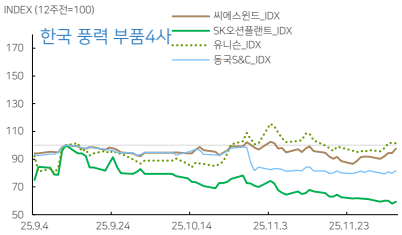
2025.12.07 [800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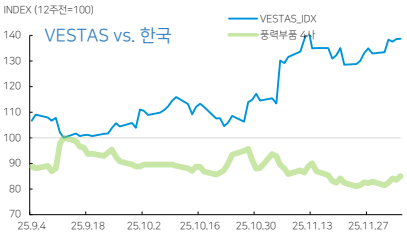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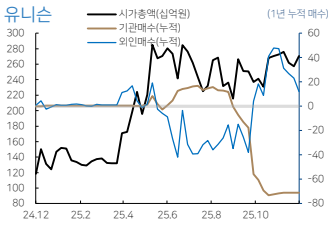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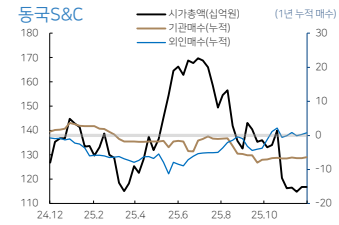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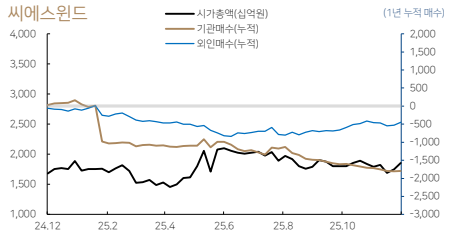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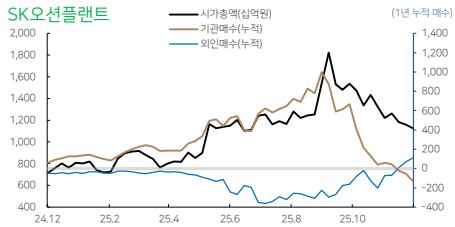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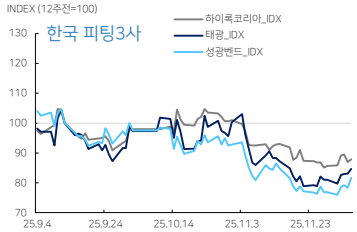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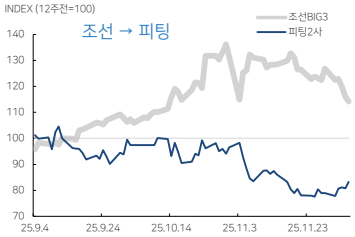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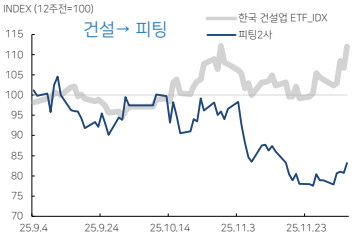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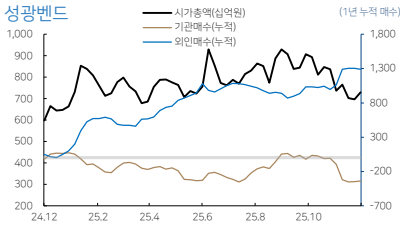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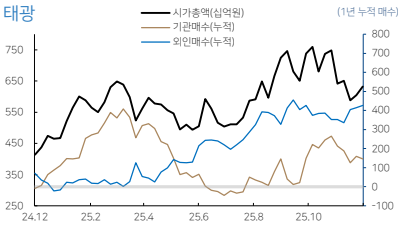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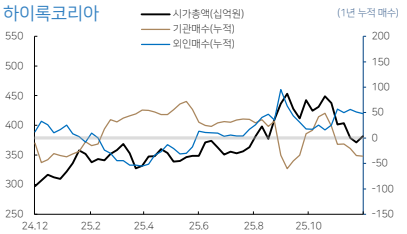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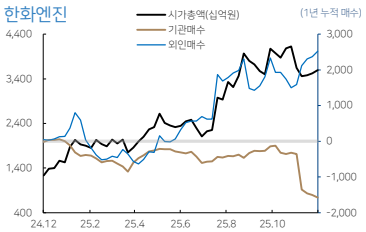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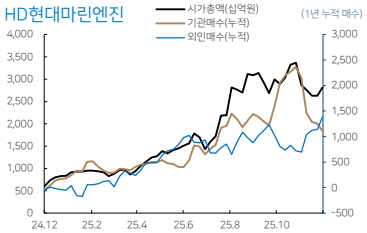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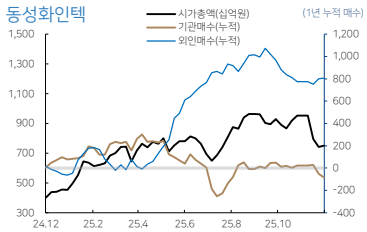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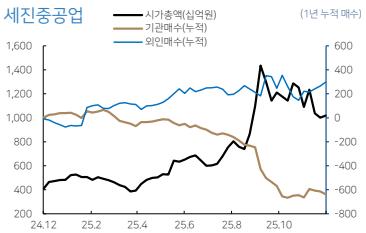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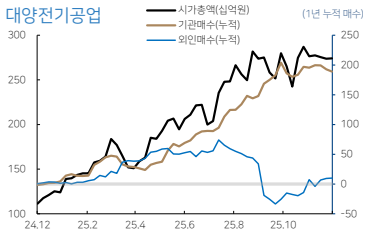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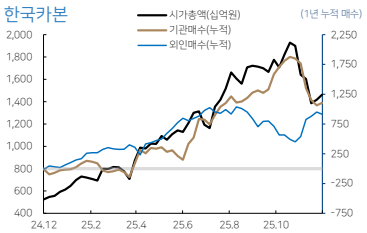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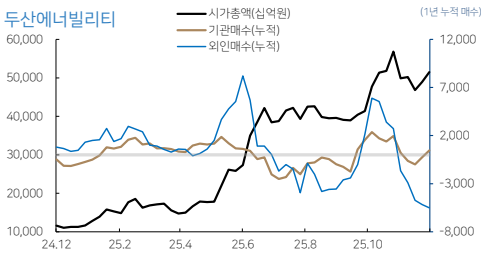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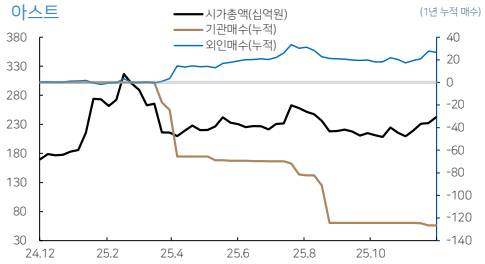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